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통주소: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전라안·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보담당 김정선 796-8364)
제 목 맑은사회·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걷기 대회 보도협조의 件
날 짜 1996. 6. 29 (총 8 쪽)

보 도 자 료

삼풍참사 1주기 추모행사 맑은사회·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

일시 및 장소 : 1996. 6. 29. 오후 2시-6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는 삼풍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6월 29일 2시-6시까지, 안전사회 실현·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맑은사회·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삼풍참사1주기 추모준비위원회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2. 행사는 부실공사의 상징인 성수대교 남단 진입로 공터에서 개최되는 “안전사회만들기 시민대회”로 시작하여, 3시-5시까지 성수대교에서 삼풍백화점까지 3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걷기대회, 5시부터 6시까지 삼풍백화점의 폐허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행사로 이어졌다.
3. 행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까지 약7km 구간 걷기대회는 30여개의 만장을 선두로, 대형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얼굴없는 영정과 무너진 삼풍백화점 등을 그린 대형 상징그림들, 그 뒤로 삼풍생존자 崔明錫, 柳智丸, 朴勝賢을 비롯한 시민들의 행렬로 이어졌다. 삼풍백화점 인간띠 잇기 대회는 삼풍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과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은 1000여미터의 생명띠를 시민들이 즉석에서 만들어 삼풍폐허를 둘러 싸는 의식이 진행되며, 김지하 시인은 본 행사를 위해 창작한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메시지를 낭독했고, 시민안전을 위한 권리현장을 채택하기도 했다(김지하 시인 지병치료로 불참 가능성).
4. 이 행사에는 삼풍참사를 비롯한 대형참사 유가족,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반시민들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작년 삼풍참사에서 친구를 잃어버린 서문여고의 학생 60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 별첨자료: 행사 개요/ 행사내용/대회사/대회결의문/
생명존중사상을 위한 메시지/시민안전을 위한 권리현장

맑은사회 ·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걷기 대회

1. 취지

- 삼풍참사 1주기를 맞아 생명존중-시민안전을 위한 상징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한다.
- 부실공사 없는 안전사회, 부정부패 없는 맑은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의지를 모은다.
-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고, 생명존중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2. 행사의 개요

(1) 행사 개요와 일시, 장소

1996. 6. 29. 2시-6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 안전사회만들기 시민대회: 2시-3시, 성수대교남단 진입로
- 시민걷기대회: 3-5시, 성수대교-->삼풍백화점
-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인간띠 잇기: 5시-6시, 삼풍백화점

(2) 행사참가자 및 단체

- 주관단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삼풍참사 1주기 추모준비위원회(유가족 단체)

- 공동주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KNCC교회와사회위원회, 녹색연합, 대구지하철가스폭발유족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교육원, 삼풍붕괴사고민간자원봉사단, 삼풍붕괴사고추모를위한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겨레사랑지역운동연합,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서해체리호사건유족회, 성수대교붕괴사고유족회, 시민교통환경센터, 양평버스추락사고대책위원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여성건설노동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유통노동조합협의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 서문여고 자원봉사자 : 서문여고 1,2,3학년 학생 640명
- 일반시민 3000여명

(3) 모토

부실공사 추방-시민안전!

이제 맑은사회, 생명존중의 사회로!

별첨 2: 행사 세부 내용

	기 회 안	비 고
<p>개 요</p>	<p>때 · 곳: 오후2시—6시 성수대교남단~삼풍백화점 인 원: 약 3000명 주요행사: 성수대교앞시민대회->걷기대회->삼풍인간띠잇기</p>	<p><집 결> 성수대교남단 진입로 공터</p>
<p>안전사회만들기 시/민/대/회</p> <p>오후2시—3시</p> <p>성수대교남단 진입로앞, 공터</p>	<p>■ 사전행사 —씻김의식(동부문화센터 풍물패)</p> <p>■ 본행사 사회: 金知賢(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기획실장)</p> <p>—목념</p> <p>—내빈소개 및 참여단체소개</p> <p>—대회사: 金昌國(참여연대 공동대표)</p> <p>—추모연설: 종교계: 金東完 목사(KNCC 총무) 시민단체: 劉在賢(경실련 사무총장) 노동계: 裒鐘培(건설노련 위원장) 피해자 대표: 성수대교 피해자</p> <p>—대회선언: 朴英淑 (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전 국회의원)</p>	<p>※ 3000여명의 시민들과 서문 여고 학생600명 이 함께 합니다.</p>
<p>걷기 3시-5시</p>	<p>삼풍을 향해 출발: 성수대교-삼풍백화점 (6Km)</p>	
<p>생명존중사회를 위한 인간띠잇기</p> <p>오후 5시—6시 삼풍백화점</p>	<p>■ 도착(자연스럽게 삼풍백화점을 에워싼다)</p> <p>■ 인간띠 잇기 사회: 金知賢(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기획실장)</p> <p>— 생명의 띠잇기(1000m 생명의 띠잇기) 안전사회를 위한 메시지 1 - 공동추최단체 참가자</p> <p>— 생명의 띠에 소망적기(모든 참가 시민들)</p> <p>— 삼풍둘레돌기의식 안전사회를 위한 메시지 2 - 崔明錫(삼풍생존자)/허상탁(삼풍 자원봉사자) 한인호(삼풍준비위 총무,삼풍유가족)</p> <p>— 생명존중사회를 위한 메시지: 金芝河</p> <p>— 시민안전현장 낭독: 金勝勳 신부(천주교인권위 고문)</p> <p>— 폐회: 생명의 띠 감기 의식</p>	<p>※모든 참석자 들이 안전사회 · 맑은사회에 대한 염원을 즉 석에서 써서 만 든 1000여미터 의 생명띠를 만 들어 삼풍폐허 를 에워싼다.</p>
<p>2부 추모제</p>	<p>삼풍참사 1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주최(599-5299)</p>	<p>6시-7시</p>
<p>3부 추모음악회</p>	<p>삼풍참사 1주기 추모준비위원회 주최(599-5299)</p>	<p>8시-10시</p>

대 회 사

김창국(참여연대 공동대표,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1년 전 오늘, 우리는 삼풍, 바로 이 자리에서 사망자가 5백명에 달하고 부상자만 천명을 헤아렸던 단군 이래 최대 참사를 겪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는 그 후유증으로 병석에 누워 고생하는 살아남은 자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유가족, 위패는 모셨지만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잠 못 이루는 실종자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번듯하게 상업지구로 포장될 흉물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게 될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 그날, 사망자가 늘어가는 속보를 확인할 때마다 참담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밤잠을 설치며 생존자의 구조소식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밑에 내 가족이 깔려있다고 절규하던 유가족의 처절함과 정부의 최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시신과 유품을 찾아 헤메이던 실종자 가족의 허망한 걸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사고의 그날만이 아니라 삼풍백화점이 세워졌던 87년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잇따른 사고 때마다 부실을 개탄하고 다짐을 되풀이 했지만 무고한 죽음의 행렬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등교길 어린 학생들과 출근길 시민들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갔던 성수대교 붕괴,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삼풍백화점 붕괴는 건물의 시공, 위기 관리 및 인명구조 과정 등의 총체적 부실이며, 세계화, 선진사회 진입, 일류기업이라는 장미빛 구호가 한낱 재앙의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참사입니다. 6억원을 위해서 백화점의 주기둥을 3개씩이나 없애 매장을 넓히고, 시민들의 폐죽음보다 매상감소가 더 중요한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의 모습은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수백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불과 3,40년만에 따라잡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요란한 선전과 자화자찬이 남긴 것은 후진국형 사고와 재난의 연속뿐입니다. 마치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고급상품에 가려져 성장과 풍요의 화신같던 삼풍백화점이 허약한 지반과 기둥에 불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성장 제일주의라는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이념은 안전 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얻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지만, 지금이라도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공기단축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불모로 하여 세워진 시설은 아무리 외양이 화려하더라도 절대 건설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경험한 시민의 불안감은 사회의 기초, 그 자체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삼풍참사가 남긴 교훈은 바로 시민들의 안전이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백명의 생목숨을 잃고도 우리는 아직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위령비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죽음을 아직도 기억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하지만 1995년 오늘, 이 자리에는 유가족, 실종자 가족외에 한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앞다투어 집에 있는 망치,톱까지 직접 챙겨 현장으로 달려가 많은 고귀한 생명을 구조해낸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허위에 인명존중의 새로운 정신을 창조하려는 많은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참석한 미래의 세쌍들과, 부실공사추방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감시할 많은 건설관련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애도의 마음만으로는 이런 참사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참사후 다시는 삼풍 백화점 붕괴같은 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던 정부와 건설업자의 큰 목소리는 모두 어디로 갔는지 안전의식이 실종된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시민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시민들이 부실공사 없는 안전사회, 부정부패없는 맑은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진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부실시공의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삼풍참사 1주기를 맞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렇듯 허망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나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4: 대회 결의문

대 회 결 의 문

박영숙(한국환경정책연구소 소장, 전 국회의원)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풍요의 상징인 백화점이 눈깜짝할새 무너졌다. 사망, 실종, 부상자가 1천 4백명에 이르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다. 이는 성장제일주의와 안전불감증, 인명경시풍조가 배태한 인재였다. 탐욕스러운 부실공사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직자 사이의 검은 야합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원천적으로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난이었다. 삼풍백화점 속에 수백명의 생명을 묻고도 이땅에는 여전히 공사중인 다리가 주저앉고, 곳곳에서 가스관이 터지고 있다. 생명의 안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생명존중이 결여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이 야기한 참담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과감히 부패의 사슬을 끊고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삼풍참사 1주기를 맞아 부패와 부실의 상징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맑은사회,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걷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사회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사회-생명존중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안전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 부실공사를 추방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를 감시·고발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 무리한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배격하고 안전 시공을 위해 기업가 스스로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부실공사를 암묵적으로 용인했던 엉터리 준공검사, 결함기식 안전진단, 소홀한 관리감독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공직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병폐를 끊기 위해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 부실공사 예방과 추방을 위한 관련 입법을 보완하고 안전관련 법령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1996년 6월 29일

三豊을 잊지 말자

김지하

세월은 물 같다. 화살 같다. 三豊사고 이후 벌써 한해가 지났다. 그 끔찍한 죽음과 햇살 같은 생환의 기적도 이제 다 잊혀졌다.

무엇이 달라졌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망각만이 남았다. 그토록 잊지 말자고 외쳤지만 쉬이 망각하고 애써 지워 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고질병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한다. 그 不忘의 약속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차츰 다가오고 있는 진정한 자치 사회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三豊사고 때 사람마다 언론마다 외쳐댄 것이 생명이요 생명의 존엄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망각한 개발논리, 천민자본주의에 대한 규탄이었다.

생명.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가득찬 죽음의 컴컴한 지배를 뚫고 생환한 세 젊은 생명은 문자 그대로 환희였으며 우리들의 새로운 출발의 신호였다.

생명.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갈 개혁의 총괄개념이다. 이 나라 지도층과 행정부의 오류와 온갖 부정이 지양되려면 보다 근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 나타나야 하고 마치 그것이 지남철 모양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遵奉, 실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혼신의 노력으로 부딪힐 때 자연의 도움, 天佑神助가 있을 것이다.

혹심한 더위 아래 있는 지구는 온통 흰빛 꽃들이 만발하여 더위를 우주로 되 돌려 보낼 수도 있을 것이며, 비극적인 지구 종말에 대한 만연된 공포와 허황한 불안에서 벗어나 생명의 새 질서, 그 무질서의 질서를 찾아 되살림으로써 인류는 이 위기를 넘어서 지구라는 혹성 위에 미증유의 아름다운 새 문명을 건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 지금 같은 高엔트로피 증대와 해체는 지구붕괴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다면 분산 해체되는 각개 물질들 속에 새 차원에서의 유기화·복잡화를 이룰 것이다. 엔트로피 증대의 절정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붕괴로 혹은 새 차원에서의 회생으로 될 것이다. 다만 우

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천민 자본주의와 부패 관료들의 돌격 개발을 멈추고 생태적 재기획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가치기준으로써 생명의 세계관, 기의 세계관으로 자기의 생각과 삶을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섯 가지 적극적 명제와 열 가지 소극적 명제를 실천할 때가 된 것이다.

적극적 명제로서의 <五敬>

1. 내 안에 살아 있는 우주생명(氣, 神氣, 至氣)을 공경하고 그에 따라 살도록 노력할 것.
2. 가족과 이웃과 인류 모두가 무궁한 우주생명을 모신 것을 인정하고 공경할 것.
3. 동식물, 무기물과 삼라만상 속에 활동하는 거룩한 우주생명을 공경할 것.
4. 모든 연장, 도구, 기계, 구조물, 기술 속에 살아 있는 우주생명을 공경함으로써 그것을 생명 질서에 알맞도록 조심스럽게 개혁할 것.
5. 일체의 생각, 사상, 정서와 사건들 속에 우주생명의 신경함이 살아 있음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질서에 알맞도록 그것을 개혁할 것.

소극적 명제로서의 <十生命>

1. 생명을 속이지 말라.
2. 생명을 업신여기지 말라.
3.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라.
4. 생명을 어지럽히지 말라.
5. 생명을 일찍 죽이지 말라.
6. 생명을 더럽히지 말라.
7. 생명을 굶기지 말라.
8. 생명을 부치지 말라.
9. 생명을 싫어하지 말라.
10. 생명을 굴복시키지 말라.

이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天豊, 地豊, 人豊의 참다운 三豊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될 것이다.

1996년 6월 25일

시 민 안 전 현 장

김승훈 신부(천주교인권위 고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안전이 예측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곳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만일 어느 사회가 그 구성원들의 이러한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다면 그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과학과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불행하고 미개한 사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20세기 후반기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동안 눈부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성장의 걸모습과 속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서 여러가지 폐해와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발전과정에서 건설된 주택·아파트·빌딩을 비롯한 많은 대형 건축물, 도시가스·전기를 비롯한 각종 에너지공급시설, 육상·지하·해상·공중의 각종 교통시설 기타 사회의 온갖 시설과 구조물들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건설되어 왔고, 건설되고 있으며, 불충분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몇년동안 성수대교의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도시가스폭발, 삼풍백화점의 붕괴 등에 의하여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는 단순히 시민의 낮은 안전의식이나 몇 가지 제도의 문제점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곡되고 미비한 제도와 정책은 물론 기업의 황금만능주의, 적당주의와 이를 감리·감독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과 결탁하거나 뒷거래를 하는 감리인과 공공기관의 무책임·무능·부패, 윤리불감증, 방관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들이 뒤엎혀 형성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의 인명피해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1주기를 맞아 다시는 이 참담한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부패와 무능과 가치전도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오랜 시간에 걸친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주체에 따른 사회적 의무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빈발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사회의 성장제일주의, 권위주의, 부패구조에서 배태되었음을 자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일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인간적인 제도와 관행을 마련하고 정착시킬 막중한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부패예방 및 안전관련법령을 보완하고 일단 제정된 법령은 이를 철저히 적용함으로써 안전문화와 생명존중 사상이 이 땅 위에 뿌리박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 감리인 기타 건설관계자들은 이윤을 위하여 법규를 어기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양보나 결탁 또는 방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기업은 심각한 제재를 받아야 하며 그 기업주는 엄중한 처벌에 직면하도록 함으로써 이 땅위에 건전한 기업윤리와 생명존중의 기업관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생명의 안전은 온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동시에 시민은 안전사회를 만들 책무가 있다. 모든 시민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행태에 대하여도 고발과 감시등 단호한 행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에 관한 개개인의 견해를 끊임없이 조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의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한 국가정책의 객체나 사고의 희생양의 지위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안전사회만들기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한다.